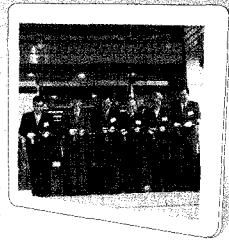


이 협회 청사 통합 · 이전



기존 불광동 등 3개 사무실이 아현동 청사로 통합 청사 이전을 계기로 회원서비스 강화와 제2의 도약을 다짐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지난 12월 9일, 최창식 서울특별시 부시장, 정도영 상근부회장 및 협회 이사진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청사 통합 · 이전식 행사를 가졌다.

이전식에 참석한 최창식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회 청사의 통합 · 이전에는 현 협회장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다”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회가 상하수도 분야에 이바지한 역할이 컸던 게 사실이며 이처럼 새로운 동지를 마련하여 미래의 발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뜻 깊다”라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간 협회는 교육사업 확대에 따른 교육장 부족과 협회 신규 사업 증가에 따라 불광동 사무국본부와 사직동 교육연구원 등으로 사무실을 나눠 운영하고 있어 회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협회가 지난해 11월 아현동 소재 前 서울시 서부수도 사업소자리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통합 청사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회원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건물내 교육인원수에 따라 최대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 각종 회의를 위한 시설들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교육 수강 및 회의 참석을 위해 협회를 찾는 회원 및 관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금번 통합청사 마련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산업 전문기관으로서 회원간 지식과 정보를 활발히 교류케 하고 확산시키는 구심점이 되어 회원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연구, 홍보, 검인증 등 사업 추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02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허영호, 김수녕 등 저명인사들을 '아리수 명예홍보대사' 로 위촉
사회 곳곳에서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

서울 수돗물 '아리수'를 사랑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이 모여 수돗물 홍보에 팔을 걷고 나섰다. 수돗물 '아리수'는 WHO 권장 수준인 145개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적합 및 국제적인 품질검사기관인 UL과 NSF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안전하고 우수한 물이므로 일반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2월 12일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리수 명예홍보대사' 위촉·발대식을 개최했다. 아리수 명예홍보대사에는 탐험가 허영호 씨와 양궁 해설위원 김수녕 씨, 박선영 씨, 김지선 씨 등에 이르기까지 교수, 언론인, 시의원, 기업인, 방송인, 전문인 등 사회 각계각

층의 주요 인사들이 활동하며 시민고객들에게 아리수의 안전성 및 우수성을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와 가족들도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 마시기를 실천한다면 사회적으로 여론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께서도 수돗물 마시기를 실천하고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 주신다면, 시민고객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며 서울 수돗물 '아리수'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시민고객에게 알리는 전도사로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부들로 구성된 아리수 홍보단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아리수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응용률 향상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

03 전문가포럼으로 수도사업의 문제를 지역맞춤형으로 해결



환경부 4개 지역별로 '맑은수돗물 포럼' 개최하여
지역내 현안 문제점을 진단하고 특성에 맞는 해결책 모색



환경부가 전국의 네 개 지역별로 맑은 수돗물 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 전문가 물 포럼은 지역별로 상이한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포럼에는 각 지역별로 학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지난해 기쁨으로 제한적인 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경우,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지방상수도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보다는 풍부한 수원 확보가 급선무인 상태로 파악했다. 이러한 경우 상수전용 댐을 건설하거나 광역상수도 개발을 통해 수원을 공급하는 개선책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원 산간지역에 위치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업자간 통합으로 지방상수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보다는 국고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한 해결이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는 지리적인 문제로 인해 수도사업 통합을 위해 관로 신설·연결 및 통합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통합운영이 오히려 생산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 수도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반해 이번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포항, 경주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향후 용수 부족량을 인근 지자체의 잉여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시설 중복투자 예방으로 수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

04 2008 WATER KOREA

성황리에 개최



국내 최대 규모로 열려 최신 기술 및 신제품을 선보이고
국제 세미나 개최 및 해외 참가 늘어 국제적 위상 높아져



한국상하수도협회와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물관련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한 물산업 박람회, '2008 WATER KOREA'가 지난 11월 10일부터 나흘간 서울시 대치동에 위치한 SETEC에서 개최되었다. 7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3년 연속 관람객 3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전국 상하수도인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서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특히 상하수도기자재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네덜란드 등 7개국 130여 개 업체가 440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국내 최대 물산업 전시회로서의 명성을 드높였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UN ESCAP 공동 워크숍'과 '한국 상수도 100년사 발간 기념회'로 그 의미를 더했다. 환경부-UN ESCAP 공동 워크숍은 '아·태지역의 생태 효율적 인프라 개발'을 주제로

동남아 등 20여 개국 환경 관련 고위공무원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으며, 그간 협회가 지향해 온 국제 박람회로서의 위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협회 정도영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수도통수 100주년을 맞이하여 금번 WATER KOREA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의미가 깊다"며 "행사가 이렇게 성황리에 진행된 것은 회원님들의 애정 덕분이고 앞으로도 회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물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09 WATER KOREA 행사는 내년 11월에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